

두산갤러리, 전시공간 넓히고 뉴욕 입주작가 14명 한자리에 지난 3년 간의 뉴욕 레지던시 성과 선보여

CNBNEWS 왕진오 기자 / 2012-07-18 17:19:55



▲ 두산갤러리에 설치된 김인숙 작가의 작품 전경.(사진=왕진오 기자) ©2012 CNB 뉴스

▲ CNB 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두산갤러리가 개관 5주년을 맞이해 전시공간을 넓히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작가들의 전시를 마련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두산 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들의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 권오상, 김기라, 김인배, 김인숙, 민성식, 박윤영, 백승우, 성낙희, 이동욱, 이주요, 이형구, 정수진, 최우람, 홍경택으로 국내외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다.

두산 레지던시 뉴욕은 1년에 6명의 작가가 상하반기를 나누어 3명씩 입주 활동을 펼쳤다. 뉴욕의 화랑들이 밀집한 첼시 지역에 위치해 현지 미술관계자들과 미술관, 갤러리와 교류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을 듣고 있다.

입주작가들은 현지 입주기간동안 오픈 스튜디오를 진행하여, 현지 미술관과 갤러리, 비영리 전시공간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작가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한국 작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창작인 위주의 레지던시 이외에도 두산큐레이터 워크숍을 운영하여 매년 3명의 전시 기획자를 양성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획인력의 인큐베이팅 활동도 펼친다. 이들은 1년간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하며, 서울과 뉴욕에서의 전시 개최를 통해 1년여의 프로그램 과정의 결과물도 선보이고 있다.

한편 2010년부터 제정된 두산연강예술상은 공연부문과 미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해 올해도 공연계 1명, 미술계 3명의 작가를 선정해 상금 및 공연 그리고 전시의 기회를 제공한다.

왕진오 기자